레이호칸 문의 사천왕

레이호칸은 9 세기 말에 창립된 이래, 닌나지 절에 전해온 귀중한 미술품과 불상 등을 수장하는 것을 목적 중 하나로 삼고 지어졌습니다. 건물 입구에는 구리로 만들어지고 채색된 지국천과 광목천의 상이 서 있습니다. 지국천과 광목천은 네 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 가운데 두 사람으로서 지국천은 동쪽, 광목천은 서쪽의 수호자입니다. 이 신상들은 그들이 지니고 있는 물건에 따라 무슨 상인지 특정할 수 있는데, 검을 들고 있는 쪽이 지국천이고 붓과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쪽이 광목천입니다. 이 상들이 레이호칸의 수장품이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. 레이호칸에는 지금까지 아미타여래 (서방정토의 부처님), 다문천(북쪽의 수호신), 증장천(남쪽의 수호신) 상이 수장되어 있었지만, 광목천과 지국천은 없었습니다. 아미타여래는 사천왕 모두를 협시로서 거느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천왕 가운데 빠져 있었던 두 상의 제작을 새롭게 의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된 상이 현재는 레이호칸의 입구에 서 있으며, 이로써 아미타여래의 협시로서 사천왕이 모두 갖춰짐과 동시에 건물 자체를 악의 영향으로부터 지키는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. 지국천과 광목천 상은 20 세기 전반에 활약했던 건축가이자 디자이너인 가타오카 야스시의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